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우려를 깬 성공적이라는 호평을 듣고 있다. 그러나 평창과 강릉에 건설한 동계스포츠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숙제로 남는다. 왼쪽 사진은 평창의 알펜시아 스키점프대, 오른쪽 사진은 강릉아이스아레나(맨 앞 경기장부터 시계방향으로), 강릉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그리고 강릉하키센터다.

성화 꺼진 평창, 1조원짜리 최첨단 경기장을 어찌할꼬...

평창동계올림픽 결산 <하>

한·중·일 올림픽 삼국지 성공적 포문 불구 최첨단 시설 경기장 사후 활용방안 주제로 생활체육·엘리트체육 공유 외엔 대안 부재



뜨겁게 타올랐던 평창의 불빛은 모두 꺼졌다. 그러나 아시아 대륙을 빛낸 '올림픽 삼국지'는 이제 시작이다.

역대 겨울스포츠 축제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열렸던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렸다. 어느 때보다 좁고 굵은 날씨였지

만, 92개국에서 모여든 2900여 올림픽인들의 열전은 이를 잠재우기 충분했다. 전 세계 스포츠팬들에게 감동과 환희를 선사한 평창올림픽, 이제 축제는 모두 끝났다. 지금은 교훈과 과제를 되짚어봐야 할 차례다. 평창올림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도쿄와 베이징에 남긴 교훈

이번 대회는 일본과 중국으로 이어지는 올림픽 삼국지 시대의 첫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었다. 2년 뒤 일본에선 2020도쿄올림픽이 열리고, 다시 2년 후에는 중국에서 2022베이징 동계올림픽이 펼쳐진다. 세계스포츠 역사상 아시아 세 나라가 2년 간격으로 올림픽을 치르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데다가 동북아시아 라이

벌 국가들이 삼국지 구도를 형성하면서 주목도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일단 포문을 연 평창올림픽은 기대 이상의 합격점을 받아냈다. 대회 유치와 준비에 이르기까지 잡음도 많았지만, 성황리에 열린 개회식을 기점으로 잇따른 호평을 받아냈다. 140만을 훌쩍 넘어선 관중들과 1만5000여명에 이르는 자원봉사자들이 유쾌하면서도 안전한 대회를 합작한 덕분이다. 여기에 선수들은 최상의 경기력을 선보이면서 완벽한 대미를 장식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도쿄와 베이징도 평창올림픽의 모든 과정을 옆에서 유심히 지켜봤다. 세심한 준비도 잊지 않았다. 도쿄의 경우 조직위원회와 시 관계자들을 파견해 강릉올림픽플라자에 직접 도쿄하우스를 차렸다. 이를 통해 대

회를 홍보하는 한편 평창올림픽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며 교훈을 얻었다. 베이징은 경제 올림픽을 준비하는 모습이었다. 자국 굴지의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가 이번 대회 공식 스폰서로 나서 존재감을 알렸다. 동시에 대규모의 취재진과 방송 인력을 파견함으로써 자국 첫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다짐했다.

●평창과 강릉이 안은 과제

다만 올림픽 삼국지와는 별개로 평창올림픽은 우리에게 무거운 숙제를 남겼다. 대표적인 예가 시설 경기장의 사후 활용방안이다.

대회가 열렸던 평창군과 정선군, 강릉시는 개막에 앞서 총 7개의 경기장을 새로 지었고, 기존 6곳을 대폭 보완했다. 총 공사에 투입된

비용만 1조원 안팎. 이들 모두 최신티 시설과 환경으로 선수들의 경기력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3월 9일~18일) 폐막 이후 활용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

일단 강릉올림픽플라자에 위치한 경기장의 경우 강원도와 강릉시가 활용 의사를 표한 상태다. 다만 이 역시 정부부처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 강원도는 2021동계아시아대회를 남·북한 공동개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그 이후 대책은 불확실하다. 현재로서는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시설을 합리적으로 공유하는 방안이 현실적 방법으로 대두되고 있다. 화려한 빛을 남긴 평창올림픽. 그만큼 우리가 떠안아야 할 그림자도 짙다. 평창 | 고훈준 기자 shutout@donga.com

“봅슬레이 은메달의 비밀, 브레이크 없는 안정적 질주”

(4인승)

이용 총감독이 밝힌 속도전 노하우

스타트 빨라도 감속하며 타는 건 역효과 구간속도서 4.87초대 스타트 최적 결론 4차시점 스타트보다 안정적 주행 승부

한국 썰매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과 은메달 한 개씩을 따냈다. 남자 스킨슬레톤 윤성빈(24·강원도청)이 16일 금메달을 따내며 빙상을 제외한 종목에서 처음 메달을 목에 거는 신화를 썼고, 원윤종(33)-김동현(31)-전정진(29·이상 강원도청)-서영우(27·경기BS연맹)는 폐막일인 25일 남자 봅슬레이 4인승에서 모두의 예상을 깨트리고 은메달을 따냈다. ‘불모지’에 가까웠던 봅슬레이 4인승 메달은 부담에서 벗어나 조용히 길을 갈았던 결과다.

봅슬레이와 스킨슬레톤, 루지 등의 썰매 종목에서 가장 강조하는 요소가 바로 스타트다. 특히 홈 트랙의 이점을 안고 있는 선수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코스 이해도가 높은 만큼 주행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가정하고, 스타트 강화에 치중하는 것이다. 실제로 평창 대회에 나선 나선 한국 봅슬레이스켈레톤대표팀이 대회 직전까지 진전 선수촌에서 훈련한 이유도 주행보다 스타트 강

화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였다.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인 26일 선수단 해단식을 앞두고 강릉선수촌에서 만난 이용 봅슬레이스켈레톤대표팀 총감독도 “2인승에서 메달을 따내지 못한 아쉬움이 4인승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그간의 여정을 돌아봤다. 기술적인 부분을 묻자 자세한 설명이 이어졌다. 여기에는 4인승 대표팀의 4차시점 당시 스타트 기록(4초93)에 대한 비밀이 숨어있었다. 이는 전체 11위를 차지한 캐나다(4초90)의 스타트 기록보다도 느리다. 스타트가 생명인 썰매종목의 특성을 고려하면, 어떻게 이를 극복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질 법하다.

이 감독은 “1번 코너에 주목해 타이밍을 조정했다. 한국스포츠개발원(KISS)과 연구하며 언제 타는 게 가장 적절한지를 고민했다. 구간속도기도 설치했다. 연습 결과 4.87~4.88초대 스타트를 끊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냈다”며 “무리한 감속보다는 스타트 기록을 줄이되 감속 없이 안정적으로 타는 전략이었다. 스타트가 빨라도 감속을 하면서 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초반에 1위와 격차가 있었지만, 주행을 거듭할수록 따라잡을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홈 트랙의 장점은 기록 향상보다 실수를 줄이는 데 있다”고 밝혔다.

강릉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스포츠동아DB



이용 봅슬레이스켈레톤대표팀 총감독은 26일 선수단 해단식에서 봅슬레이 4인승 은메달의 비결을 털어냈다. 스타트가 약간 늦어져도 초반 구간에서 감속을 최소화한 것이 주효했다. 스포츠동아DB

‘포스트 이승훈’ 가능성 증명한 정재원

매스스타트 통해 팀플레이·지구력 강화 막판 스피드 보완엔 장거리 주자 손색없어

2018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에서 가장 주목 받은 선수는 이승훈(30·대한항공)이다. 특히 그가 24일 매스스타트에서 따낸 금메달은 이 종목 올림픽 초대 챔피언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 과정에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완벽하게 해낸 정재원(17·동북고)도 제법 주목을 받고 있다. 혹자는 그를 페이스메이커 부르지만, 그의 설명은 다르다. “내 플레이로 팀에 도움이 되고, (이)승훈이 형이 금메달을 따게 돼 기쁘다.” 그렇다. 정재원은 ‘팀플레이어’였다.

매스스타트도 팀추월과 마찬가지로 팀플레이의 중요성이 큰 종목이다. 같은 국가에서 복수의 선수가 결승 무대에 서면 그만큼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동료 큰 베르베이(네덜란드)의 동메달을 위해 막판 스피드를 자처했던 ‘빙속 화제’ 스텐 크라머가 보여준 팀플레이가 주목 받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재원의 팀플레이가 빛난 경기는 비단 24일 결승뿐만이 아니다. 2017년 12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4차대회(미국 솔트레이크시티) 이 종목에서도 막판까지 선두그룹에서 추월하는 선수들을 견제하며 이승훈의 막판 스



정재원

피트를 도왔다. 당시에도 이승훈이 금메달을 따냈고, 정재원은 9위를 차지했다. 정재원이 더욱 주목 받는 이유는 따로 있다. 그는 누구보다 패기와 승부욕이 강한 선수다. 메달에 대한 생각이 없을 리 없다. 그러나 팀플레이에 대한 바른 생각과 그에 따른 책임감도 크다. 올림픽에서 ‘우리 팀’은 바로 한국이다. 정재원은 팀의 우승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승훈이 우승을 확정짓고 정재원의 손을 꼭 붙잡고 트랙을 돌고, “(정)재원은 나보다 멋진 선수가 될 것이다”고 자신 있게 외친 것도 그래서다.

정재원은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장거리의 기대주다. 한마디로 ‘포스트 이승훈’이 될 것으로 기대가 큰 자원이자. 그는 6400m를 달려야 하는 매스스타트를 통해 팀플레이를 배웠고, 지구력도 강화했다. 막판 스피드 능력까지 향상하면 차세대 장거리 주자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다. 그는 26일 올림픽 해단식을 마친 뒤 곧바로 ISU 주니어월드컵 3차대회가 열리는 미국 솔트레이크시티로 출국했다. 업그레이드를 위한 실 틈 없는 행보다. 강릉 | 강산 기자

역대 최다 30개 나라가 올림픽 메달...절대강자는 없었다

평창서 확인된 새로운 트렌드

지구촌 동계스포츠의 지면이 넓어졌다는 징표일까. 우승후보의 피치 못할 부진이 낳은 현상일까.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대회 역사상 가장 많은 나라가 메달을 획득했다는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

17일간의 열전을 마친 평창올림픽은 총

307개의 메달을 배출했다. 원래는 15개 종목에 걸쳐 306개 메달이 걸려있었지만, 15일 열렸던 크로스컨트리스키 여자 10km에서 공동 동메달이 나오면서 메달 수가 하나 더 늘게 됐다.

그렇다면 총 307개 메달 가운데 하나 이상의 전리품을 얻은 나라는 얼마나 될까. 92개 출전국 가운데 자국선수를 한 번이라도 시상대 위에 올린 나라는 총 30국가였다. 금메달 14개, 은메

달 14개, 동메달 11개로 종합순위 1위를 차지한 노르웨이를 필두로 나란히 동메달 하나씩을 품은 카자흐스탄~라트비아~리히텐슈타인에 이르기까지 30개국이 값진 성과를 냈다.

이는 역대 동계올림픽을 되돌아봤을 때도 의미 있는 숫자다. 이전까지 메달 획득국이 가장 많았던 대회는 2006토리노동계올림픽과 2010밴쿠버동계올림픽, 2014소치동계올림픽

한국 실상종목서 3개 메달 등 새 전기 도핑파문 러시아의 13위 추락도 원인

에의 26개국이었다. 지난 세 차례 대회 동안 정체했던 숫자가 이번 평창올림픽을 통해 늘어난 셈이다. 이는 전 세계에 걸쳐 동계스포츠 지면이 넓어졌음을 뜻한다. 개최국인 대한민국이 그간 약세를 보였던 실상종목에서 처음으로 3개의 메달을 따낸 점에서 알 수 있듯 여러 나라들이 평창올림픽에서 두꺼운 알을 깨고 나왔다.

한편으로 ‘동계 강국’ 러시아의 약세가 이 같

은 현상을 낳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가 주도의 도핑 조작 파문으로 이번 대회에서 국호와 국기, 국가(國歌)를 모두 잃고 ‘러시아에서 온 올림픽 선수(OAR)’로 뽀 리시에는 출전선수마저 대폭 줄어들었다. 이는 결국 대회 부진으로 이어졌다. OAR은 금메달 2개·은메달 6개·동메달 9개로 종합순위 13위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게 됐고, 그 빈자리를 경쟁국 선수들에게 반사이익을 남겼다는 분석이다.

평창 | 고훈준 기자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